LCWR(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 미국 여자수도회 리더십 회의)

2025 연총 – 조지아 주, 애틀랜타

Kathy Brazda, CSJ

사랑의 역동성: 빛과 어둠의 시간에 놓인 리더십

LCWR 회장 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매로, 동반자로 또 같은 리더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수도공동체 내에서 엄청난 변화와 격변의 시기에 리더의 역할을 함을 이해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해 겪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초대받은 부르심을 숙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게 열렸던 거룩한 공간 일부가 여러분과 이 회의에도 열려 꺾이지 않는 희망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과 사랑이 함께한 이 시간과 미래에도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한 해였는지요!

저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두에 나오는 말이 생각납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이야말로 우리가 한 국가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또 여자 수도회로서 지금 처한 이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을 유지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분이 세상에 남긴 희망의 유산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레오 14 세 교황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 교황님이 저와 같은 시카고 출신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양극화 된 교회, 교회론이나 신학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례 예식과 신심마저도 일치와 기도에 장애물처럼 작용하는 듯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도 바로 이시기에 레오 교황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노달리타스로 초대합니다. 바티칸의 새로운 문서인 시노드 이행 단계 길잡이는 시노달리타스야 말로 교회가 본연의 복음화 사명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우려는 지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노드 형태의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위해 봉사하며 교회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도 교회가 하느님 나라 선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시노달리타스는 성령께서 들어오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자수도자 리더로서 우리가 고유한 소명과 역할을 맡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는 희망의 희년이자 찬미받으소서 10 주년을 기념하며, 저로서는 제가 속한 성요셉수녀회 창설 375 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희망과 평화와 치유와 격려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희망의 희년은 우리에게 숙고와 기념할 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순례자임을 새로이 숙고하도록 초대합니다.

정치,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가슴은 취약한 이들… 지구와 가난한 이들, 이주민들, 그리고 성소수자(LGBTQIA+)공동체를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그들을 위해 자비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종종 우리 나라 상태가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념과 친절, 진실, 자비, 단순함,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살아내고자 애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욕적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치를 가져오는 사랑의 입장에서 공의로운 분노와 행동으로 응답할 방법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식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지럽고 격정적이면서 또 합리적이고 또 정확히 조정됩니다. 최고이면서 최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수도공동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미래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서로 의존해야 함을 의식합니다. 따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생활의 카리스마가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받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교회와 세상에 주는 선물로서 수도생활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회원들과 사도직과 옛 생활 방식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진실로 빛과 어둠의 시기, 꺾이지 않는 희망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에 의존해야할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리더십에 부름 받았고, 우리 시대의 역설인 거룩한 공간을 지키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오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고, 오직 성령의 움직임이 있을뿐임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 받았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에 존재하고 살며 이시간을 이끄는 것은 선물이면서 도전입니다.

제게 있어서 지난 해는 희망과 취약함과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으로 응답하라고 저를 부르고, 실제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 숙고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순간 제게 부드러우면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적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변모를 가져오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놀랍거나 흥미롭거나 도전적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지난 해 일어난 일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라고 한 디킨스의 글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지난 해를 요약해줍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배운 교훈 대부분은 워크숍(LCWR 이 훌륭한 워크숍을 많이 제공하지만)에서 오지 않습니다. 코칭이나 피정에서 항상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 대부분은 경험에서 옵니다. 지난해 제게 그 교훈은 말 그대로 신체적 불편함과 편안함의 결여(질병)에서 왔습니다.

작년 9 월, 연피정을 갔었는데, 정말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연결이 끊어진 듯, 방향을 잃은 듯, 분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은 한 가지는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몰랐습니다. 10 월 2 일 수호천사 축일에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LCWR 에서의 역할, 수도회 내에서 나의 리더십, 심지어 자의식마저 불확실했습니다. 나 자신의 미래, 나 자신의 생명, 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가득할 때 어떻게 리더로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래에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삶과 리더십을 수용하는 입구, 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성한 곳으로 깊이 잠기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놀라고 불확실한 상태로 시작한 여정은 의심과 희망, 두려움과 신뢰, 취약함과 강함의 여정이 되었고, 하느님의 가슴 속으로, 사랑의 심장 속으로 더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때, 저는 피정에서 받은 메시지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역사 상 이 시기에 리더십을 맡은 우리 모두를 위한 멋진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은 우리 안의 뭔가를 해방시켜 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몰랐던 어떤 힘. 어떤 희망. 삶을 위한 어떤 역량
꿋꿋한 회복력.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 변모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힘.
사랑의 역동성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모아들여
우리 모두를 통해 사랑 자체가 다시 하느님께로 쏟아져들어간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빛으로 통과하여 비추는 문이 되고 창문이 된다.

이렇게 질병으로 편안함이 결여된 불편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그 경험에 나를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사랑으로 둘러싸이는…하느님께로 모아들여짐을 참으로 경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더십은 역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버리지 않으면서 통제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취약하지만, 나 중심이나 직책보다 더 깊은 어떤 것에 굳건한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해도 희망에 뿌리를 두고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 현존 … 자기에게 또 우리 수녀님들과 수녀회에 현존하고 그리스도께 깊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확실한 희망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맡고 있는 지난 몇년 동안, 저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인 우리 몸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니고 있음을 의식해왔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종종 제 기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암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니고 있음이 무슨 뜻인지 더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왠지 저는 제게 일어난 일과 제가 배우게 될 교훈이 우리 수녀회와 어쩌면 이 회의에도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빛이 통과해서 비추는 문 혹은 창문이 아니었을까요?

제 개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역설과 희망과 절망의 시기에 우리에게 밝혀지리라고 믿는 바를 가슴으로 들어주시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이 신성한 공간으로 초대받아 그리스도가 통과하여 비추는 문과 창문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여러 해 동안, LCWR 은 미래 우리의 리더십 역량과 수도회의 지속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자 초대해왔었고, 물론 이 모두를 수도생활과 우리 카리스마의 렌즈를 통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아프게 되면서 계획세우기와 결정의 시급함이 더 절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수녀회의 회원통계를 볼 때마다 계산하면서 미래에 나는 어느 나이대에 들어갈까 보게 됩니다…통계적으로 나의 위치를 말입니다.

저는 69 세이고 “비교적 젊은 회원”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수도생활에 있어서만요) 적어도 트렌드 Trends 로 추정하는 데이터로 당분간은 그렇게(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예측이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종종 위원회에서 일할 젊거나 나이든 수녀들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사도직과 리더십을 수행할 수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서 저의 세계관에 도전이 왔고, 우리 모두 같이 철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도전이면서 기회가 되는 시기에 있고, 수도생활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튼의 말을 보강하자면, 우리는 이 신성하면서 취약한 시기에 창의적인 변모의 힘을 갖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브레느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약함은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10 월 2 일 이후, 제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고 오직 모습을 드러내어 취약함과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받아들일뿐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하느님과 의료 전문진들에게 내맡겨야 했습니다.
의사 진료일과 검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항암치료 시기에 나타나는 저혈압이나 낮은 전혈구 수치를 견뎌야 했습니다.
나의 일정이나 감정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체력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취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갑작스레 이루어진 이 과정은 리더십이라는 보호공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더십은 투명성과 진정성과 개방성을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암 진단을 우리 수녀회와 공유하고 저의 여정에 대해 회원들에게 계속 소식을 전해야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나는 일을 나누는 것이 동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회원들에게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수녀회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LCWR 와 제가 속한 다른 이사회와 위원회에도 알렸습니다. 물론, 쏟아지는 지지가 엄청났습니다.

문자와 전화 혹은 카드가 지닌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항상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온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취약한 상태로, 제가 스스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약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가난이었습니다.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방어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수술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신체적 치유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치유도 필요함을 압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반에 의존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저는 우리 수녀회의 요양 센터로 옮겨가서 수련기 이후로 일상을 같이 해본 적 없는 수녀님들과 지냈습니다. 식사와 기도와 레크레이션 시간에 수녀님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받는 법을 배우고, 리더나 유능한 사람이 아닌 자매로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신성한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제가 필요한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수녀님들과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제가 필요한 것을 살펴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2 세된 쥴리 수녀님은 저의 세탁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깊은 기도와 기쁨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에서 은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살핌은 제가 치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현존하게 되는 빛과 사랑의 출입구였습니다.

저의 취약함을 통해 저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자비와 사랑과 연민을 통해 그리스도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또 연로한 수녀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요.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살아내고자 우리가 받은 선물과 약함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로의 부르심, 리더십에로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야 안젤루는 말합니다. *우리가 흥겹게 주고 감사하며 받을 때 모두가 축복을 받는다.*

리더십 팀에 속한 마리 호간, 수 토거슨, 팻 워브리튼 그리고 헬렌 스코미슬리 수녀님은 팀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고려하여 제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책임을 일부도 떠맡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참여적이고

공유하는 리더십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은사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늘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 이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팀이 문과 창문이 되어 하느님의 빛이 그 속에서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CWR 리더십에는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캐롤 수녀님과 LCWR 회장단인 모린 기어리 수녀님과 비키 라슨 수녀님은 이 해를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 저의 첫째 관심사였습니다.

캐롤 수녀님과 모린 수녀님 그리고 비키 수녀님이 대부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도록 해주었고 기도와 현존으로 지지해주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저의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하던 유능함과 능력, 그리고 항상 책임을 지거나 모든 일을 해야한다는 등의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저의 선택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움으로써 하느님께 철저히 의존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흘러들어오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자신만의 이야기, 우리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강하고 유능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수도회를 위해 회원들을 위해 또 팀을 위해 그 이야기를 함께해야 합니다. 하루 24 시간 일 주일 내내 일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이르는데 꼭 중병이나 중상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에고를 버리고 보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비추고 성령께 의탁하여 영감과 인도를 청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질병이 제게서 리더십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리더십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취약함은 우리 수녀회에서 수도생활에서 또 우리 회의에서도 생깁니다.

우리는 회원이든 리더십이든 우리를 둘러싼 약함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옛 방식으로 수행하던 것이 변화되고 있고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에 계획 하나를 세워도 얼마가지 못합니다. 첫번 째 계획이 두번 째 계획이 되고 언제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자 발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찰스 디킨스는 모두 우리가 변화의 세기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러 수도회가 권한과 특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던 방식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던 예전의 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나라를 볼 때 한때 우리가 가졌던 가치가 깨지기 쉬움을 봅니다.이 세상에 보다 그리스도와 같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의 취약함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파트너로 협력하도록 인도해줄 수 있을까요?

노르마 피멘탈 수녀님과 국경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 또 이주민들을 위해 일하는우리 수녀님들, 협력회원들 그리고 협력자들을 통해 이러한 예를 보게됩니다.

홈 보이 인더스트리 창설자이자 원장인 그렉 보일 신부님과 취약한 청년들과 일하거나 총기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일하는 이들 안에서 그 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사형폐지를 위해 일하는 헬렌 프레진 수녀님과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안에서도 봅니다.

여러분 회의 수녀님들 이름도 댈 수 있고, 희망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사도직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조용한 숙고와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느님 사랑의 흐름과 그리스도의 현존에 잠길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졌고, 이는 머튼이 말하듯, 우리 안의 무엇을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몰랐던 어떤 힘. 어떤 희망. 생명에 대한 역량. 꿋꿋한 회복력을.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녀님은 참 용감해요. 정말 용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지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이를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는 단순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가셨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나인데.

이게 저 입니다.

어느날, 영적지도자에게 이런 말이 얼마나 성가신지 약간 불평을 하였습니다. 수녀님은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탈출기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할 때, 나다, 진정한 나, 하느님의 신성이 비춥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탁할 때 우리는 용기와 은총, 사랑의 역동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격려를 받아, 우리는 최고이자 최악의 시기를 통과하여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는 기적을, 말 그대로 기적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문자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지만, 어느샌가 저도 신체적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 같이 하도록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잠에서 깨었을 때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신체 치유라는 고치 속에 싸여있다 라는 말이 머리속에서 울렸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이신 분**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에 중심을 두고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넘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러 외딴 곳으로 감을 봅니다. 예수님 기도의 에너지-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친교야 말로 오천 명을 먹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며 혈루병을 앓는 여인, 마비된 자와 그외 여러 사람들을 고치는 에너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현실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수많은 이들을 먹이고 치유하는데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아주 깊고 하느님과 하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선물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에너지가 하느님의 에너지와 결합되어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마련할 수 있음을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시간도 최악의 시간도, 지혜와 어리석음도 견디고, 강인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의 신성한 공간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우리 정체성 … 나다에 가 닿아, 우리의 신성이 하느님과 결합되어 최상의 우리 자신을 자신의 삶에, 수도회 리더십에 그리고 LCWR 리더십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시기 수도생활에 던져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회의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의 신성한 공간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수도생활을 구하고 세상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가난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의탁할 은총을 받아들이는 깊은 깨달음을 간청하도록 부름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된 가운데, 이 역설의 시기에 새로운 깊이로 우리의 사명과 카리스마를 살아가라는 하느님의 호출을 들을 수 있도록 간청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된 가운데, 세상에 대안적 존재 방식을, 우리 행성이 번창하고 교회가 번성하며 역동적인 미래를 맞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어떤 방식을 탄생시키도록 우리가 함께 부름받고 있음을 깊이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 시대를 위한 기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부름받은 시급함을 의식하며, 우리의 가슴과 눈을 세상을 변모시키고 치유하는 **사랑**의 역동성에 고정합시다.

두려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기도의 힘과 서로에게 의존하며 만남과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우리는 진실로 얼마나 세상의 치유를 원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수도생활의 치유와 번성을 얼마나 진정으로 원합니까?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변모되기를 기도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취약함에 가닿고 자기를 내어놓아,
하느님의 꺾이지 않는 희망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머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모아들여
그 사랑을 다시 하느님께로 쏟아져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느님께 의존하게 될 때,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갈망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고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역동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읍시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치유와 새로운 생명을 부르시는지 깊이 깊이 들읍시다.

온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느님의 꺾이지 않는 약속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고
사랑의 역동성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